

‘골프지존’ 신지애 세계 1위 보인다



4타차 역전 우승... JLPGA에서만 통산 4승 ‘여제’ 오초아에 랭킹포인트 0.35점 차 맹추격

지존 신지애(22·미라에셋)가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서 시즌 첫 우승을 따내며 세계랭킹 1위 등극을 눈앞에 뒀다. 신지애는 2일 일본 지바현 쓰루마이 골프장(파72·6485야드)에서 열린 사이버 에이전트 레이디스 골프토너먼트 마지막 날 보기 없이 버디 6개를 잡아 3라운드 합계 8언더파 208타로 역전승을 거두며 일본 무대에 서만 통산 4승을 올렸다. 신지애는 올해 일본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를 오가며 대회마다 좋은 성적을 올리고도 우승이 없었지만 시즌 첫 우승을 일본에서 올리며 한국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세계여자골프랭킹 1위를 바라보게 됐다.

현재 은퇴를 선언한 세계랭킹 1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는 멕시코에서 열린 LPGA 투어 트레스 마리아스 챔피언십에 출전하고 있어 3일 최종 라운드 결과에 따라 골퍼여제의 자리가 뒤바뀔 수 있다. 4월26일 현재 신지애는 랭킹 포인트 8.76(61개 대회)으로 오초아(9.11점42개 대회)를 바짝 뒤쫓고 있다. 선두에 4타 뒤진 공동 6위로 최종 라운드를 시작한 신지애는 전반에 3타를 줄이며 역전 우승에 발동을 걸었다. 신지애는 13번홀(파4)에서 버디를 낚으며 선두 아리무라 차에(일본)를 2타차까지 바짝 추격했고 14번(파4)과 17번홀(파5)에서도 버디를 추가해 역전 우승을 만들어냈다.

다. 신지애의 맹추격에 긴장한 듯 아리무라는 14번홀에서 2타를 잃고 흔들렸고 이어지는 16번(파4)과 17번홀 연속으로 보기를 적어내며 합계 4언더파 212타로 공동 5위까지 내려앉았다. 신지애는 올해 일본 투어에서 안선주(23)·박인비(22·SK텔레콤)에 이어 세번째 한국인 우승자가 됐다. 상금 1260만엔을 받은 신지애는 “지난 겨울 동계 훈련을 하면서 증강된 체력으로 샤프트를 스틸로 바꿨다가 예전의 감각을 찾기 위해 그라파이트로 다시 바꿨다”며 “무엇보다 쉽지 않은 코스에서 이를 연속 보기 없이 경기를 펼친 것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신지애는 13일 개막하는 LPGA 투어 벨라이크로 LPGA 클래식을 준비하기 위해 4일 미국행 비행기를 탄다. 이자마 아카네와 고가 미호(이상 일본)가 공동 2위(6언더파 210타)를 차지했고 전미정(28)이 단독 4위(5언더파 211타)에 올랐다. /연합뉴스

위성미 1타차

차세대 골퍼여제를 노리는 위성미(21·나이기골프)와 미야자토 아이(일본)의 치열한 선두경쟁이 사흘째 이어졌다. 위성미는 2일(한국시각) 멕시코 미초아칸주 모렐리아의 트레스 마리아스 골프장(파73·6천539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트레스 마리아스 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바람이 심하게 불어 고전한 가운데 타수를 줄이지 못하고 중간합계 12언더파 207타에 머물렀다. 이 사이 미야자토 아이는 2언더파 71타를 쳐 중간합계 13언더파 206타로 위성미를 1타차 공동 2위로 밀어내고 선두 자리를 탈환했다. 1타차 단독 선두로 3라운드를 시작한 위

LPGA 마리아스 챔피언십 3R 미야자토와 치열한 선두 경쟁

성미는 14번홀(파3) 버디로 2언더파를 만들어 무난히 선두자리를 지키는 듯 했지만 15번홀과 17번홀(파4)에서 보기를 적어내며 선두자리를 내줬다. 위성미와 함께 브리타니 린스컴(미국)이 공동 2위(12언더파 207타)에 자리해 미야자토·위성미·린스컴이 4라운드에 챔피언십에서 동반플레이를 펼친다. 최나연(23·SK텔레콤)도 2타를 줄이며 공동 4위(11언더파 208타)에 올랐다. 오초아는 중간합계 10언더파 209타로 6위에 자리해 우승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았다. 하지만 오초아는 이번 대회에서 4위 안에 들지 못하면 3년여 동안 지켜온 세계랭킹 1위 자리를 넘겨 줄 수도 있다. /연합뉴스

미켈슨 2타차

필 미켈슨(미국)이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첫 탈락한 미국프로골프투어(PGA) 투어 웨일할로 챔피언십 3라운드에서 우승컵을 사정권 안에 두었다. 미켈슨은 2일(한국시각)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웨일할로 골프장(파72·7442야드)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버디 4개에 보기 3개를 묶어 1언더파 71타를 쳤다. 중간합계 7언더파 209타를 적어낸 미켈

PGA 웨일할로 챔피언십 3R 공동 2위 올라 정상 등극 노력

슨은 단독 선두 빌리 메이페어(미국·9언더파 207타)에 2타 뒤진 공동 2위에 올라 마스터스대회 우승 이후 다시 정상 등극을 노리고 있다. 미켈슨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음식을 잘 못 먹어 복통과 구토 증세로 고생했다. 재미교포 앤서니 김(미국)도 2타를 줄이며 중간합계 5언더파 211타를 쳐 공동 7위에 자리하며 우승 가능성을 남겨놓았다. /연합뉴스



도심 질주

2일 올림픽공원~세종로사거리구간에서 열린 국내 최대 도로 사이클 대회인 ‘투르 드 코리아 2010’ 10구간 경기에서 선수들이 한강을 따라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투르 드 코리아’ 1449.2km 대장정 끝

열흘 넘게 전국을 누비며 달린 국내 최대 도로일주 사이클대회 ‘투르 드 코리아 2010’이 1449.2km에 달하는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올해 4회째를 맞는 투르 드 코리아는 2일 마이클 프리드먼(24·젤리벨리·미국)이 개인 종합 우승을 차지한 가운데 서울에서 펼쳐진 마지막 10구간(49.2km)을 끝으로 폐막했다. 7구간부터 종합 1위에 올라 꾸준히 선두를 유지한 마이클 프리드먼은 이날도 선두권으로 끝내며 2위 제세 앤서니(25·젤리벨리·미국)를 103시간31분45초로 가장 좋은 성적

을 냈고 홍콩차이나(103시간34분16초)가 2위를 차지했다. 이날 10구간에서는 홍콩차이나의 창지러(19·홍콩차이나팀, 홍콩)가 1시간7분16초만에 단독 선두로 들어왔다. 한국의 황희경(21·경기도)과 이기석(22·지역2팀)이 1위에 25초 뒤진 기록으로 뒤를 이었다. 산악 구간을 잘 달린 선수를 뽑는 산악왕(KOM) 부문에서는 아시아 최고의 클라이머로 통하는 공효석(24·서울시청)이 1위(28점)를 차지해 불발무너리 저지를 입었

을 냈고 홍콩차이나(103시간34분16초)가 2위를 차지했다. 이날 10구간에서는 홍콩차이나의 창지러(19·홍콩차이나팀, 홍콩)가 1시간7분16초만에 단독 선두로 들어왔다. 한국의 황희경(21·경기도)과 이기석(22·지역2팀)이 1위에 25초 뒤진 기록으로 뒤를 이었다. 산악 구간을 잘 달린 선수를 뽑는 산악왕(KOM) 부문에서는 아시아 최고의 클라이머로 통하는 공효석(24·서울시청)이 1위(28점)를 차지해 불발무너리 저지를 입었

美 프리드먼 우승 한국 장경구 7위

다. 최준근(26·EMG사이클)과 장권(21·백스석세스스포츠·중국)이 각각 19점과 16점으로 2·3위에 올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주최로 지난달 22일 제주에서 막을 올린 이번 대회는 전남 강진·전북 군산·충북 충주·경북 구미·강원 양양·춘천 등을 돌았다. 대회에는 18팀 160여 명의 전문 선수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한국 사이클의 간판 조호성(36·서울시청)은 3구간에서 다치면서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연합뉴스

광주일고 대통령배 고교야구 8강

화순고, 개성고에 역전패

광주일고가 대통령배전국고교야구대회 8강에 진출했다. 시즌 2연패에 도전하는 황금사자기 우승팀 광주일고는 지난 1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대회 16강전에서 유신고를 9-6으로 제압했다. 1회 허일의 2루타로 선취점을 뽑은 광주일고는 2회에는 타자일순하며 5-0으로 앞서 나갔다. 5회 선두타자로 나온 백세웅이 우월 솔로 홈런을 쏘아올리며 대회 1호 홈런을 기록하는 등 막강 화력을 과시한 광주일고는 6회까지 9점을 뽑아냈다. 하지만 불펜진이 난조를 보였다. 선발 이정호가 5이닝 동안 4피안타 6탈삼진 무실점의 투구로 유신고를 막았지만 서흥규·박기철로 이어진 중간 계투진이 7·8회 3점씩을 내주며 점수는 9-6이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유신고의 추격을 막기 위해 에이스 유창식이 출격했다. 8회말 2사 만루의 위기 상황에 등판한 유창식은 4번 백찬이를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8회를 마무리했다. 유창식은 9회 첫타자에게 볼넷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세타자 연속 삼진을 잡아내며 팀의 8강행을 확정지었다. 한편 화순고는 대회 16강전에서 지난해 무등기 우승팀 개성고에 4-7로 역전패를 당했다. 화순고는 2일 열린 개성고와의 16강 대결에서 3-2로 앞서던 7회말 1사에서 볼넷 세계를 연달아 내주며 위기를 맞았다. 몸에 맞는 볼로 밀어내기 1점을 내준 화순고는 이어진 만루상황에서 2루수 앞 땅볼 때 1점을 더 허용하며 3-4로 역전을 당했다. 8회에도 3실점을 한 화순고는 추가득점에 실패해 8강행이 좌절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타이거즈 전설들의 새 야구 인생

김종모 전 수석코치 美 연수 김종국 2군무대 코치 데뷔전

타이거즈의 전설 김종모와 김종국이 새로운 야구 인생길에 올랐다. KIA 타이거즈의 김종모 전 수석코치가 지난달 30일 미국으로 지도자 연수길에 올랐다. 같은 날 ‘수비의 달인’ 김종국은 2군 삼투와의 경기에서 코치 데뷔전을 가졌다. 지난 시즌이 끝난후 KIA 유니폼을 벗어야 했던 김종모 전 수석이 오는 12일 개막하는 미국 독립리그에서 지도자 과업을 맡는다. 김종모 전 수석은 오는 9월까지 미국 텍사스주 밸러스의 독립리그 팀인 그랜드 프레리어 에어호그스 구단에서 객원 코치 신분으로 경기와 팀 운영 등 전반적인 미국야구를 접할 계획이다. 김종모 전 수석은 “낯선 환경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큰 틀에서 야구팀을 접하면서 지도자 공부를 하고 돌아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환상적인 수비로 타이거즈 내야를 수호했던 김종국 플레잉코치도 지도자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 김종국 코치는 지난달 30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삼투와의 2군 경기에서 처음으로 1루에 모습을 드러냈다. 3군 육성군으로 자리를 옮긴 차영화 테사스주 밸러스의 독립리그 팀인 그랜드 프레리어 에어호그스 구단에서 객원 코치 신분으로 경기와 팀 운영 등 전반적인 미국야구를 접할 계획이다. 김종국 코치는 “아직 그라운드 밖의 자리가 어색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야구팀을 접하면서 지도자 공부를 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호랑이, 뒷심부족 3연승 놓쳤다



호랑이들이 뒷심부족으로 눈앞에서 싸늘이 3연승을 놓쳤다. KIA 타이거즈가 2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시즌 9차전에서 연장 10회 장성우의 끝내기 안타에 4-5로 무릎을 꿇었다. 주말 3연전중 앞선 두 차례의 대결에서 장단 32안타를 몰아치며 23점을 뽑아냈던 타자들은 2일 7개의 안타를 추가하며 몸을 풀었지만 마지막 집중력이 아쉬웠다.

영성현 수비가 초반 실점의 빌미가 됐다. 1회말 우익수 신종길의 선두타자 김주찬의 타구를 쫓아 달려나왔지만 공이 뒤로 빠지면서 3루타가 됐다. 이어진 손아섭의 타구는 신종길의 키를 넘기면서 1타점 2루타가 됐다. 홍성흔의 희생플라이와 이대호의 유격수 앞 땅볼을 묶어 롯데가 먼저 2점을 뽑아냈다. 3회말 이번에는 롯데의 수비가 문제였다. 이용규의 땅볼을 처리하던 2루수 정훈이 공을 놓치며 2사 1루, 신종길의 대수비로 들어간 나지완이 자신의 첫 타석에서 우익수 담장 넘기는 투런포를 쏘아올리며 경기를 2-2

원점으로 되돌렸다. 팽팽한 투수전이 전개되던 5회초, 이용규가 좌익선상을 깨는 2루타로 1루 주자 박기남을 홈으로 불러들이며 3-2 역전극을 펼쳤지만 6회말 로페즈가 손아섭·홍성흔·이대호에게 연속 안타를 맞으며 경기는 다시 3-3 동점이 됐다. 양팀의 추격전은 계속됐다. 7회말 롯데가 김주찬의 적시타로 3-4로 달아나자 8회초 김상훈이 1타점 적시타로 맞서며 4-4로 균형을 맞췄다. 하지만 KIA는 2사 만루의 기회에서 추가득점에 실패하며 3연승의 문턱에서 주저앉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영성현 수비 초반 실점 빌미

롯데전 10회 연장 4대5 패

선발 로페즈는 8회까지 11피안타 4사구 4탈삼진 4실점을 하며 마운드를 지킨 뒤 손영민에게 넘겨졌다. 9회 추가득점에 실패한 양팀은 연장전에 돌입했다. 연장 10회초 삼자범퇴로 KIA 타자들이 몰려난 뒤 롯데의 마지막 반격이 펼쳐졌다. 손영민이 홍성흔과 이대호를 삼진으로 돌려세웠지만 가르시아에게 볼넷을 내줬다. 대타 전준우의 내야 안타로 2사 2·3루의 위기에 몰린 손영민은 장성우에게 끝내기 안타를 허용하면서 시즌 첫 패를 기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